"구산선문 연구, 시대변화 함께 조명해야"

한국선학회, 10월 27일 원로학자 2인 좌담회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답사서 발견된 비문 기존 사료와 상이해



최병헌 서울대 명예교수

당시 교계 변화 상징 나말여초 연구 병행

한국선학회(학회장 신규탁)가 개최한 원로학자 좌담회에서 나온 두 원로학자의 당부다. 한국선학회는 10월 27일 서울 연세대 외솔관 526호 강의실에서 '두 원로교수에게 듣는다 -구산선문의 실상' 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두 원로학자들의 경험에 기반한 구산선문에 대한 입장이 소개됐다. 또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고영섭 동국대 교수, 정영식 고려대장경연구소 박사, 강호선 성신여대 교수, 윤기엽 선리연구원 박사 등 후학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먼저 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는 〈조당집(祖堂集)〉 연구 및 답사과정에 기반한 경험을 소개했다. 조당집은 합천 해인사 고려대장경 속에 단 1본만 전해지는 선종 역사서로 초기 선종사 연구에서 핵심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 명예교수는 1965년 동국대 도서관에서 〈조당집〉 영인본 간행에 참여한 이후 구법승을 비롯한 구산선문의 원류를 탐구해왔다.

조 교수는 "답사 현장에서 조당집에 등장하는 지명이라고 하여도 전등사나 비문 등에 의거해 연구 과정에서 바로잡은 결과가 많다"며 "후학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구산선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조당집에 의한 일종의 '조당로드' 는 당시의 사회 문화 흐름과 정치 변화까지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현지 답사 뿐만 아니라 당시 변화상을 함께 살표보며 선불교 교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972년 '신라 하대 선종 구산파의 성립' 발표 이후 50년 넘게 한국불교사 연구를 진행해 온 최병헌 교수는 '나말 여초 선종사 연구' 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병헌 교수는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 는 1937년과 1938년 포광 김영수의 오교구산부터 오교양종 연구로 시작됐다"며 "나말여초 선종사 연구에 대한 흐름을 보면 당시 불교계의 변화 양상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병헌 교수는 봉암사 지증대사비문(智證大師碑文), 봉암사 정진대사비문(靜眞大師碑文), 쌍계사 진감국사비문(眞鑑國師碑文) 등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최 교수는 "비문을 보면 법계의 변화가 극명히 드러난다. 이 의미는 역사적 사실과 종교적 정통성이 차이가 있다는 점"이라며 "법계의 변경은 불교계 변화의 산물로 구산선문의 법계 변화 속에 드러난 시대 변화, 그리고 불교계 변화상을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규탁 학회장은 "후학들이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것을 깊이 연구하는 경책으로 삼겠다. 선종사 연구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서의 발표 내용은 한국선학회 학회지 〈선학〉에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가야불교 실존했나, 허구인가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등, 18일 부산대서 학술대회

가야불교는 실제로 존재했는가? 아니면 허구인가? 삼국유사를 토대로 전해지는 가야불교의 실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회장 조수동, 이진오)와 동명대 인도문화교류연구소(소장 장재진)는 11월 18일 오전 10시30분 부산대 인덕관 대회의실에서 '가야불교문화 재조명' 이란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부 개회식에서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의 개회사와 내빈의 축사에 이어 2부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학술대회는 이진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이 기조발표로 '상상력 이론의 관점에서 본 가야불교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가야불교문화-역사적 이미지와 현황(장재진 동명대 교수) △가야불교의 전래 시기와 전래처 검토(백승옥 국립해양박물관) △아시아 해양 문화교류와 불교전파(석길암 동국대 교수) △가야불교 논쟁의 실체와 비판적 검토(윤종갑 동아대) △북발 루투의 관점에서 본 아요디야(한지연 금강대) △전설의 아유타를 찾아서-서역 사료로 새롭게 조명해 본 가야사(한대성 동국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다.

장재진 동명대 인도문화교류연구소 소장은 "가야불교문화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문화는 사전적 의미로 가장 넓은 분야를 의미한다. 특정 주제보단 가야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하성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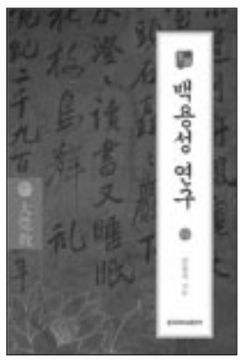
백용성 스님 연구 모든 것을 담다

동국대 출판부, '백용성 연구' 도서 출간

현대를 대표하는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의 행적과 위상을 담은 연구서가 나왔다.

동국대 출판부는 "한국 근대불교사에 명망 높은 고승이었던 백용성 스님을 연구한 도서를 발간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백용성 스님은 대각교를 창시한 승려이자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불교계 독립운동가다. 이 책은 백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으로 시작해 백용성 사상의 정체성, 백용성과 불교개혁, 백용성 사상의 계승까지 백용성 대종사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세밀하게 조망했다. 특히 25년간 근대불교연구에만 매진해온 저자,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필생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동국대 출판부 관계자는 "이 책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 불교의 생활화를 몸소 실천하신 백용성 스님의 독립정신을 선양하고 그의 삶과 업적을 조명함으로써 현재 우리 국민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성철 소장 고문헌 정밀 학술조사 한다

해인사 백련암 · 동국대 MOU

한국 현대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성철 스님(1912~1993)이 소장했던 고문헌의 정밀 학술 조사가 추진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과 해인사 백련암(감원 원택)은 11월 1일 백련암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2012년부터 동국대 불교학술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수행해 온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이하 ABC) 구축 사업' 의 일환으로 성철 스님이 생전에 소장 · 연찬했던 불교 고문헌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간행본 6백여 책과 중국간행본 1천 6백여 책 등 2천 2백여 책을 정밀조사, 촬영할 예정이다.

한편 ABC사업은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 및 그 성과를 출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도난 환수 성보들 보물 지정 잇달아

문화재청, 프랑스서 환지본처한 옥천사 초강대왕도 지정 공고

용천사 영산회상도 등 지정 예고 "종단과 관련 부처 노력의 성과"



10월 31일 보물로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중 제2초강대왕도. 프랑스에서 발견돼 환지본처됐다.

도난됐다가 다시 환지본처한 성보들이 잇달아 보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됐다. 환수 성보들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보물 제1693호에 포함되어 지정된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제2초강대왕도)' 는 시왕도 10폭 중 1976년 도난당해 행방을 알 수 없던 2폭 중의 1폭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발견되어 원래의 장소였던 고성 옥천사에 다시 봉안된 역사적인 유물이다.

2016년 환수된 '제2초강대왕도' 는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도상과 작품의 완결성을 한층 높여줄 뿐 아니라 현존하는 시왕도 중에서도 구도, 색채, 필선, 인물의 표현 등 양식상 완성도가 높아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문화재청은 10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지정 신청한 대비사 영산회상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보문사 삼장보살도 등 3건 3점의 회수 도난 성보를 보물로 지정 예고 했다.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는 영조 25년(1749년)에 조성된 불화로, 2000년 5월 30일 경 용천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회수됐다.

'청도 대비사 영산회상도' 는 숙종 12년(1686년)에 조성된 불화로, 1988년 12월 24일 대비사에서 도난 되었다가 2014년 8월 다시 회수됐다.

'예천 보문사 삼장보살도' 는 영조 43년(1767년)에 조성됐으며, 1989년 6월 5일 보문사에서 도난당했다가 2014년 8월에 회수됐다. 한 화면에 삼장보살과 시왕도(十王圖)가 결합한 독특한 도상의 불화다.

회수 도난 성보의 잇달은 보물 지정예고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는 "지정 예고된 3건 3점의 성보는 2014년 종단이 경찰청, 문화재청 등 정부 기관과 협조하여 회수한 31건 48점의 성보 가운데 일부"라면서 "이번 보물 지정 예고는 2014년 회수부터 2017년 환지본처,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까지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 등 정부 각계 기관이 노력하여 이룬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은 앞으로도 모든 성보가 제자리에서 본연의 종교적 가치를 올곧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명상심리상담학회, 제21차 학술대회

11일, 서울 목우선원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인경)가 1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삼선동 목우선원서 제21차 정기학술대회 및 명상상담포럼을 개최한다.

제1부에서는 △최금숙(동방문화대학원대 박사과정)의 '영상관법을 통한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 감소' △이성권(강남메가스터디 강사)의 '수험생의 시험불안 치유 경험사례' △허수미(아들러심리센터 대표)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고생들의 영상관법적용사례' 가 발표된다. 제2부에서는 △선업스님(통담아카데미아 원장)의 '표현명상(집단상담)이 부부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일광 스님(거창군 삶의쉼터 관장)의 '장애인 형제를 부양하는 미혼여성의 명상심리상담사례-감춰진 날개옷을 입다' △비채상담연구소장 용진 스님의 '불안에 보호막이 되어준 호흡명상'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사용중인 법당의 앰프, 스피커를 최고급 "파워드믹싱 앰프"와
아래 장비로 단 160만원 에 소리 공양차 교체 설치 보시 해 드립니다!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회수 해 옵니다)







무선랜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 (1인용 선택)

주지스님 전용!
자체 소리조절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85,000원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700,000 +

무선핸드 헤드셋 마이크
900메가(1가지 선택)
가격 300,000 +

각종 마이크 코드 탁자
설치비 일절
비용 : 250,000 =

(기본으로 무선 핸드나, 무선 헤드셋 중 한가지 선택)

실제대금 ~~2,450,000원~~ ➡ 160만원에 할인 설치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 법당의 앰프 설비 보상교체 신청법!

본 설치는 무료 보시 및 보상 성격상 출장 설치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상품을 예약시 우측의 계좌로 앰프 구입비의 계약금 '50~60% 정도 입금' 하시고 주소 및 희망 설치일, 문자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문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CD 플레이어 5개 연속사용 가격 : 350,000원